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 폐회사

이 자료는 연찬회 폐회사 발표시(2001.2.21,
17:50 예정)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인의 인식 전환

2001.2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진 님

□ 먼저 오늘 우리 경제의 혈액인 금융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 97년말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위기는 97년초부터 계속된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누구나 조금씩 그 징조를 느껴 왔겠지만, 그 크기와 강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 금융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산업현장에는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에도 수백개씩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경제에 만연한 불확실성과 비능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투명한 경제구조를 만들며, 각 경제주체의 도덕성을 기초로 한 효율성의 제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성된 공적자금은 지난 연말까지 채권발행자금외에 차관자금, 국유재산, 차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9조원이 금융기관에 투입되었습니다.

- 정부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특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최소비용의 원칙” 등을 성문화하고 공적자금 관리체계도 새롭게 갖추었으며

지난 2월14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19일 1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기관의 여신분류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잠재부실까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사주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바꾸었으며, 금융기관의 회계정보도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개되도록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금융시장은 시장시스템에 의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감추고, 대출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 저는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을 모신 이 자리를 빌어 서로 마음을 다잡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냐에 대한 반성입니다.

○ 최근 모 외국계은행이 국내 대기업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신디케이트 론을 주도한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해당 기업의 원가 및 이윤요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인근 경쟁국가의 유사기업과의 경쟁력 우위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에 면밀한 분석하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외국금융기관보다 보다 잘 알고 제대로 분석했어야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금융금융기관으로서 좁은 관점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융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성있는 대출처를 찾기 보다는 현재의 경영에 안주하고 자리의 보전과 제몫

○
○
채기기에만 신경쓰는 등 단순한 생활인의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그동안 국가경제의 한축을 책임지고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사회 공기로서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세가 아니고,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비교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여러 국민들에게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 Primary CBO와 CLO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 정부의 보증제공과 기업·금융기관들의 책임분담을 통해
신용위험을 제거하고자 했던 신상품의 장점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비록 지금은 P-CBO와 CLO를 통한 회사채 발행과
차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대책 발표 당시에도 일선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던 신상품의 장점을 의사결정계층까지 확산·
이해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 것은

우리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체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상의하달식이며 변화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 지 우려됩니다.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여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조직문화도 연공서열위주의 관행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금융산업의 미래에 비추어 볼 때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 과연 우리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떠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해 나가고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때입니다.

□ 우리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하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자금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 정부는 그동안 금융과 기업의 위기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 위기초기에는 시중은행이 소극적이었던 기업신용공여기능을 특수은행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 최근 들어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용경색 현상을 줄이기 위해 Primary CBO제도와 CLO제도 및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방안을 도입하여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상당히 얼어붙었던 자금시장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산은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공적기구를 활용하여 회사채의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인수를 도모하는 방안은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전적으로 시장참여자인 금융기관의 힘과 역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제도의 마련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금융기관은 이익의 창출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動因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은 금융거래 현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부문을 찾아내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비록 확고한 기술과 건전한 기업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부 벤처기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만,

벤처산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인차를 찾는 것은 실업자를 줄이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 이처럼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과해 왔거나 숨겨진 경쟁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수익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가치제고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우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효율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의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시대적 소명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 우리 금융기관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할 때입니다.

○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 남아 있는 과제는 금융기관 내부의 조직과 문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여기 계신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영진·직원들간의 공감대 형성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경영관행이 정착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 금융개혁을 마무리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